

## 한국교회 12%, 이주민 사역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258만 명 시대, 인구의 5%가 이주민인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주민 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목회적 과제가 되었다. 최근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주민 사역을 핵심 선교 영역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이주민 선교 조사’(한국교회 트렌드 2026) 결과를 보면 현재 이주민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는 12%로 나타났는데, 현재의 이주민 증가 현상과 맞물려 이주민 사역은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주민 사역 교회 내 이주민 비율은 증가(68%)하고 있고, 향후 이주민 사역을 ‘더 확대’(86%) 하겠다는 비율도 압도적이다.

좀 더 희망적인 지표는 성도들의 준비된 마음이다. 현재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의 성도 중 무려 68%가 이주민 사역 참여 의향을 밝히며 사역의 든든한 잠재적 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이번 <넘버즈323호>에서는 이주민 사역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다룬다. 한국 선교의 중심축이 이주민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민 선교 조사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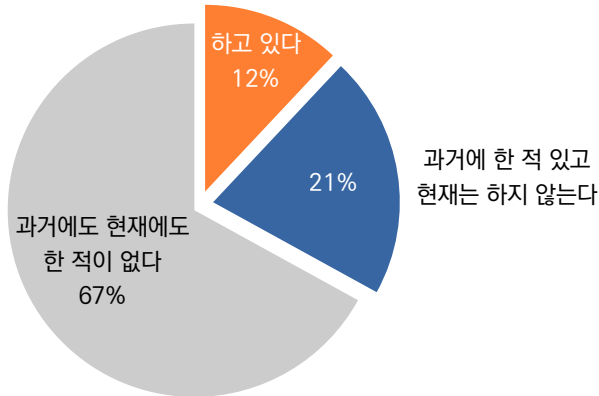
구분	이주민 선교 단체	이주민 선교 목회자	일반 목회자	일반성도
조사 대상	이주민 선교 중인 선교단체 (대표 또는 성장급 이상)	이주민 선교 사역 중인 목회자	전국의 담임목사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교회 출석자)
표본 규모	총 60단체(유효표본)	총 95명(유효표본)	총 500명(유효표본)	총 1,0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이메일 및 카톡을 통한 URL 발송)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표본 추출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년 국민 종교분포 및 종교 현황 조사'에 근거하여 모집단 비율을 추출함)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는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5년 5월 28일 ~ 6월 10일 (총 14일간)		2025년 6월 2일 ~ 6월 10일 (총 9일간)	2025년 5월 15일 ~ 5월 22일 (총 8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 희망친구 기아대책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01

## [교회의 이주민 선교 현황] 한국교회 12%, 이주민 사역하고 있다

-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주민 사역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 '하고 있다'는 응답은 12%로, 교회 8곳 중 1곳만이 이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과거에 한 적 있고 현재는 하지 않는다' 21%로 나타나, 교회 3곳 중 1곳(33%)이 이주민 사역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중단한 교회도 상당수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림] 이주민 사역 여부 (일반 목회자 전체)



## 이주민 사역 계기 1위, '주변에 이주민이 많아서'!

-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주위에 이주민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시작했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위의 권고나 요청'(14%), '해외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귀국하면서'(10%) 순이었다.
- 이는 이주민 사역이 교회의 명확한 사명이나 사전 기획된 프로그램에서 출발하기보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 변화와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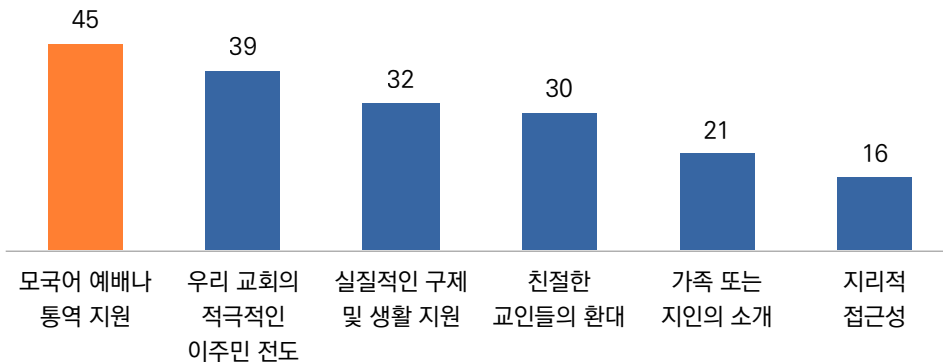
[그림] 이주민 사역 계기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상위 7개, %)



## 이주민 교회 출석의 출발선, ‘모국어 예배/통역 지원’(45%)!

-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에게 이주민이 현재 교회에 출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물은 결과, ‘모국어 예배나 통역 지원’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교회의 적극적인 이주민 전도’(39%), ‘실질적인 구제 및 생활 지원’(32%) 등의 순이었다.
- 이는 이주민의 교회 출석과 정착을 위해서는 언어 장벽 해소와 생활 밀착형 지원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이주민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1+2순위, 상위 6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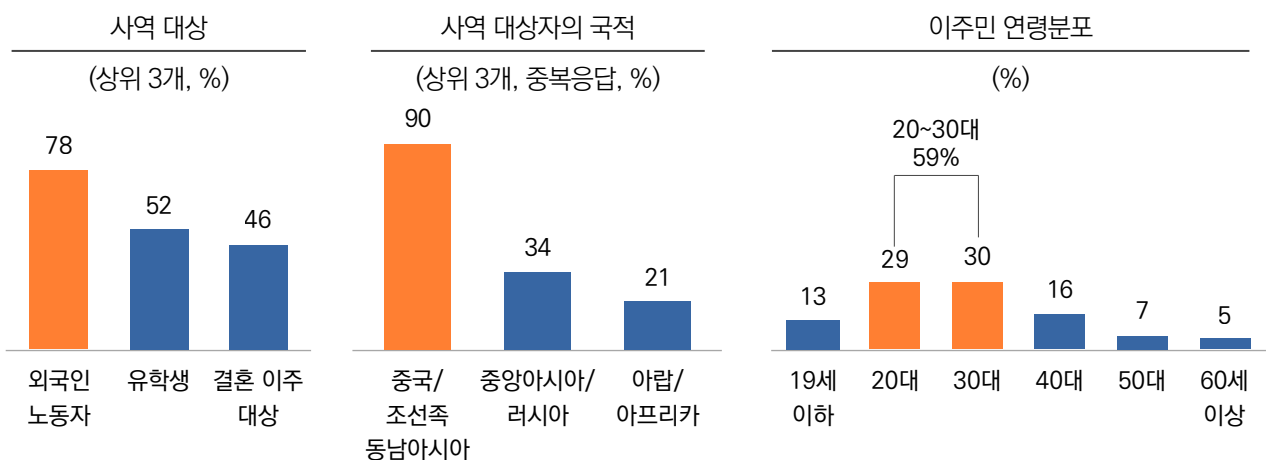
## 02

### [이주민 사역 교회의 실제]

### 이주민 성도 ⇒ 외국인 노동자/중국·동남아 출신/20~30대!

- 이주민 사역 교회에 출석하는 이주민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사역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가 78%로 가장 많았으며, ‘유학생’(52%), ‘결혼 이주 대상’(46%)이 그 뒤를 이었다.
- 교회 출석 이주민의 국적은 ‘중국/조선족/동남아시아’ 출신이 대다수(90%)였고, 연령대는 ‘20~30대’가 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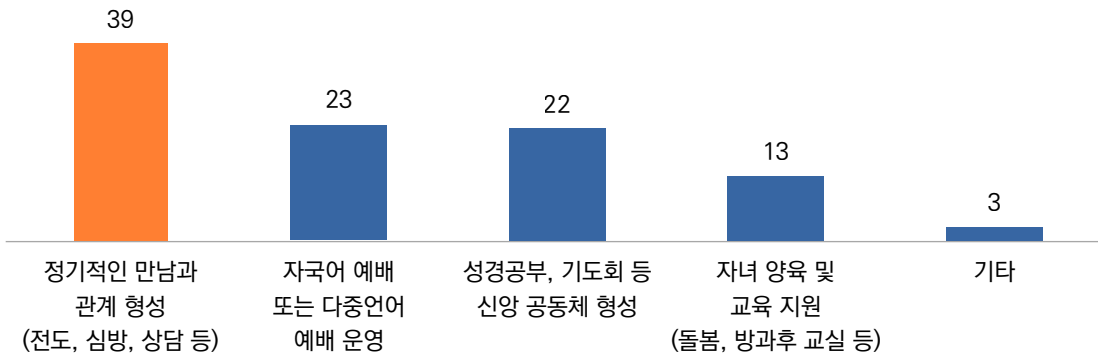
[그림] 이주민 사역 교회의 이주민 특성 (이주민 사역 목회자)



## 이주민 목회 효과적 방법, 정기적 만남과 관계 형성!

-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에게 이주민 목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은 결과, '정기적인 만남과 관계 형성(전도, 심방, 상담 등)'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어 '자국어 예배 또는 다중언어 예배 운영'(23%), '성경공부·기도회 등 신앙 공동체 형성'(22%)이 뒤를 이었다.
- 이는 이주민 목회는 예배 형식이나 프로그램 중심 접근보다, 반복적 접촉과 신뢰 축적을 통한 관계 형성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 방식임을 보여준다.
- 앞서 이주민이 교회에 발을 들이게 하는 출발점이 '모국어 예배·통역 지원'과 같은 언어 장벽 해소라면, 그들이 교회에 머물고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정기적인 만남과 관계 형성'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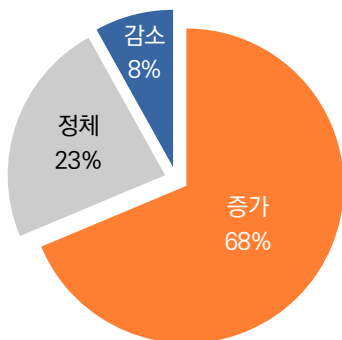
[그림] 이주민 목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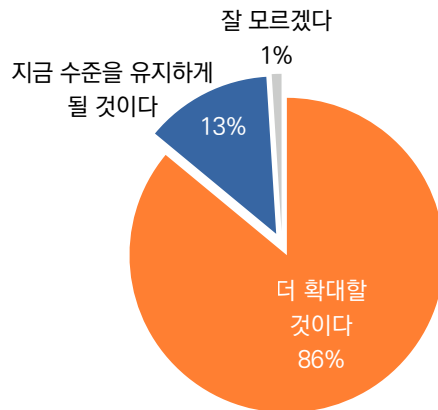
## 국내 이주민 사역, 지속적인 확장 중!

- 이주민 사역 교회 10곳 중 7곳(68%)에서 교회 내 이주민 성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해, 이주민 사역의 규모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향후 이주민 사역 계획을 물었는데,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대부분(86%)은 '더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은 13%에 그쳤다.
- 이는 이주민 사역이 일시적 대응이나 선택적 사역을 넘어, 현재의 이주민 증가 현상과 맞물려 교회 사역의 중요한 축이자 중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할 사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교회 내 이주민 비율 추이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그림] 향후 이주민 사역 계획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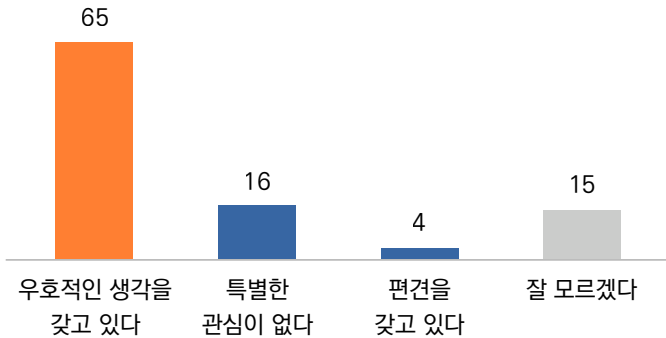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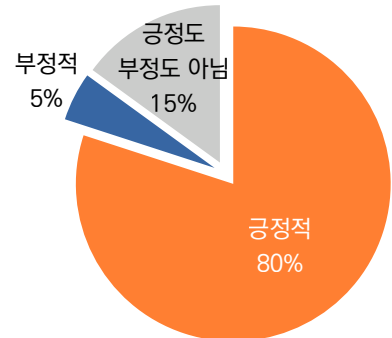
## [이주민 사역에 대한 한국인 성도들의 인식·경험] 이주민 사역 교회 한국인 성도, 이주민에 대해 우호적!

-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 내 한국인 성도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성도 3명 중 2명(65%)은 이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보였고, ‘편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 또한 이주민 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긍정적’(80%)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그림] 이주민 사역 교회 내 한국인 성도들의 이주민 인식  
(출석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하는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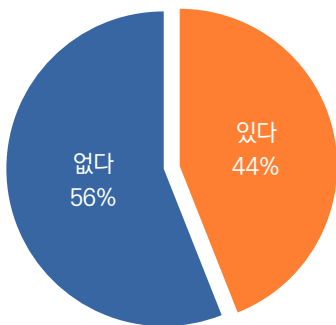
[그림] 이주민 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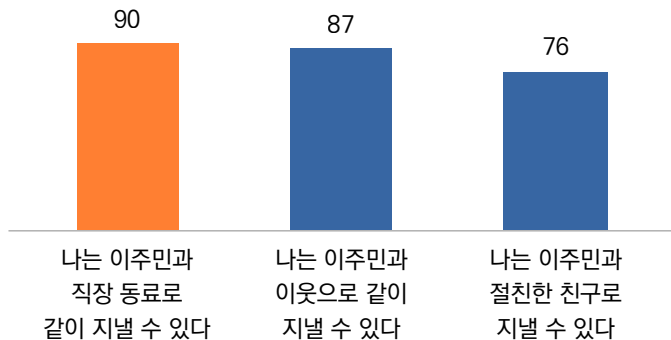
### 성도 76%, 이주민과 절친한 친구 O.K!

- 성도를 대상으로 이주민과의 실제 교류 경험을 묻은 결과, ‘교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4%로 절반에 가까웠다.
- 이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이주민과 직장 동료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이 90%,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이 87%, ‘절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응답도 76%에 달했다.
- 이는 실제 교류 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주민과의 관계 형성 전반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낮고 수용성이 높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이주민과 실제 교류 경험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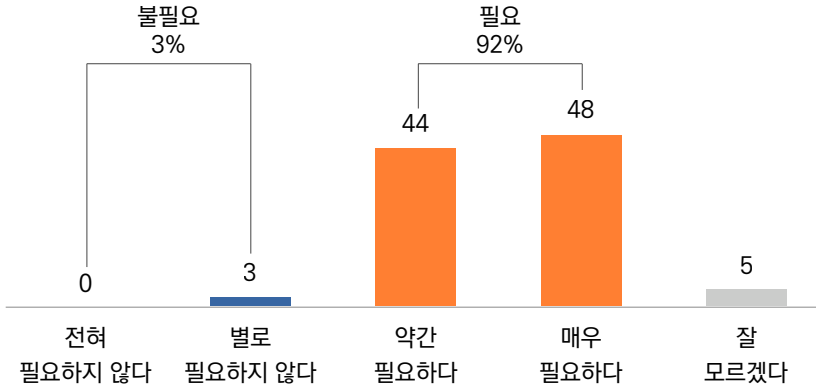
[그림] 이주민과의 관계 인식 (성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4점 척도, %)



## 일반성도 대부분, 이주민 사역 '필요하다'!

- 이주민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도 대다수(92%)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8%로 절반에 가까워, 성도들 사이에서 이주민 사역을 교회의 중요 사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이주민 사역의 필요성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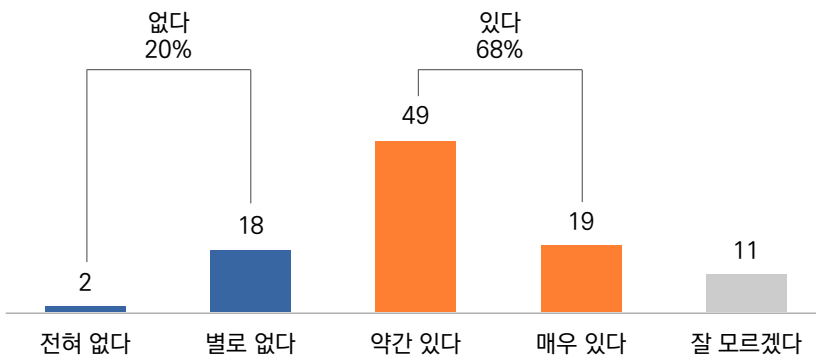


## 04

### [이주민 선교의 확장 가능성] 일반성도 68%, 향후 이주민 사역 참여 의향 있다!

- 현재 출석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을 진행하지 않는 성도를 대상으로, 향후 이주민 사역이 시작될 경우 참여 의향을 묻은 결과, 성도의 68%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특히 이 가운데 참여 의향이 '매우 있다' 비율은 19%로 나타나, 5명 중 1명은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였다.
- 이는 이주민 사역이 새롭게 시작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자발적 참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 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향후 출석 교회가 이주민 사역할 경우 참여 의향 (출석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안 하는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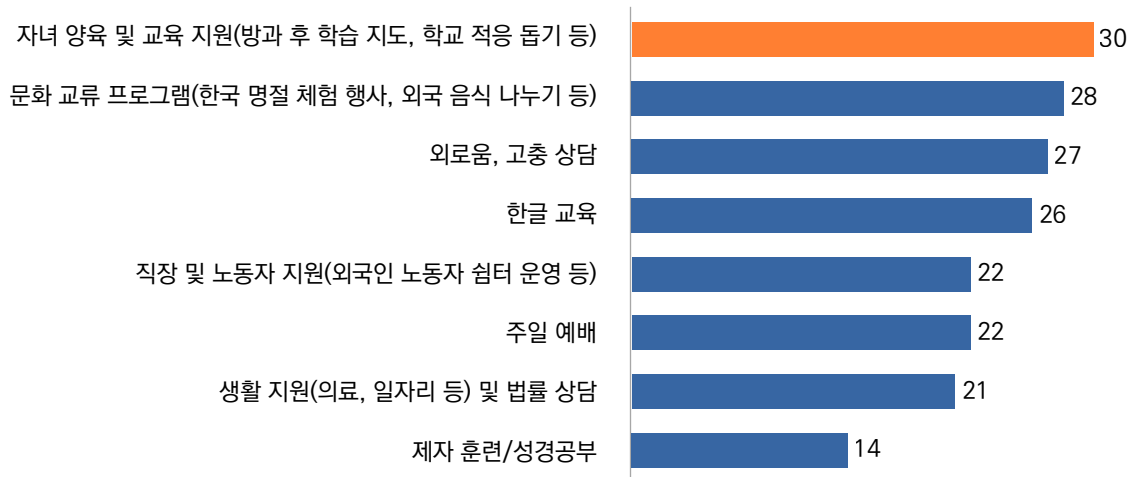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이주민 사역의 핵심 과제, 자녀양육 지원·문화 교류·외로움 해소!

- 이주민 사역에 가장 필요한 활동을 묻은 결과,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문화 교류 프로그램'(28%), '외로움 및 고충 상담'(27%), '한글 교육'(26%)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 이는 이주민 사역의 핵심 필요가 예배나 제자훈련 이전에, 자녀 교육·문화 적응·외로움 해소와 같은 일상 밀착형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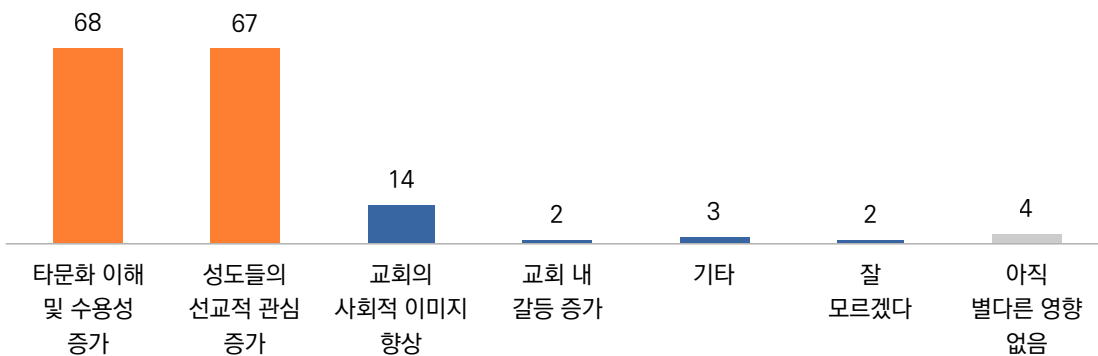
[그림] 이주민 사역에 가장 필요한 활동 (성도, 1+2순위, 상위 8개, %)



## 이주민 사역의 영향, 성도들의 타문화 이해·선교적 관심 증가!

- 이주민 사역이 한국인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타문화 이해 및 수용성 증가'(68%)와 '성도들의 선교적 관심 증가'(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응답된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 향상'(14%)도 긍정적 효과였다.
- 반면 '교회 내 갈등' 등 부정적 영향은 2%에 불과했다.

[그림] 이주민 사역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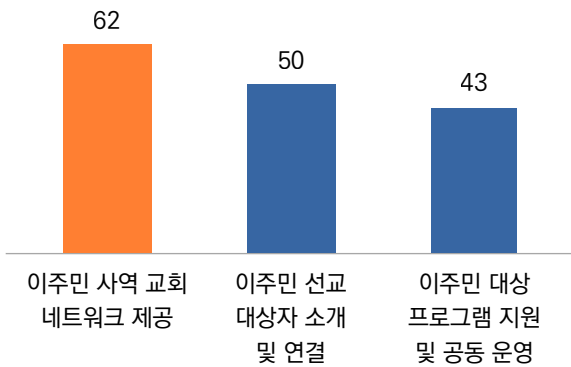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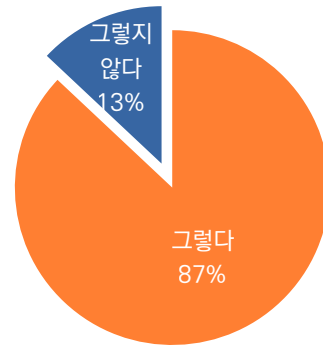
## [이주민 사역 단체의 현실] 지역교회와의 협력, 실제 이주민 사역에 큰 도움!

- 이주민 선교 단체는 지역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주민 선교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교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이주민 사역 교회 네트워크 제공'(62%)을 가장 큰 도움으로 꼽았고, 이어 '이주민 선교 대상자 소개 및 연결'(50%), '이주민 대상 프로그램 지원 및 공동 운영'(43%) 순이었다.
- 또한 이주민 선교 단체의 87%는 지역교회와의 협력이 실제 이주민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이주민 선교에 있어 지역교회와의 협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지역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 (이주민 선교 단체, 상위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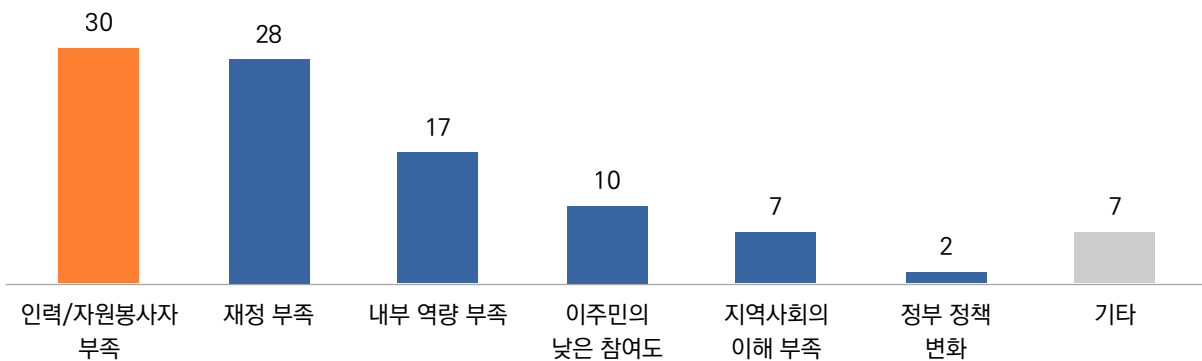
[그림] 지역교회와의 협력의 효과\* (이주민 선교 단체, 4점 척도)



## 이주민 사역의 어려움, '인력/재정 부족'!

- 이주민 사역 단체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내부적 자원 부족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력/자원봉사자 부족'(30%)과 '재정 부족'(28%)을 가장 높게 꼽아, 인적·물적 한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이는 '이주민의 낮은 참여도'(10%)나 '지역사회의 이해 부족'(7%) 등 외부적 요인보다 사역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동력 확보가 더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그림] 이주민 사역의 어려운 점 (이주민 선교 단체, %)



## 이번호 요약

### 1. 한국교회 12%, 이주민 사역하고 있다

- 목회자 대상으로 이주민 사역 여부를 묻은 결과, 현재 '하고 있는' 교회는 12%로 나타났다.

### 2. 국내 이주민 사역, 지속적인 확장 중!

- 이주민 사역 교회 10곳 중 7곳(68%)에서 교회 내 이주민 성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이주민 사역 계획에 대해서도 이주민 사역 교회 목회자의 86%는 더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해, 이주민 사역이 속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일반성도 68%, 향후 이주민 사역에 참여 의향 있다

- 현재 출석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을 진행하지 않는 성도를 대상으로, 향후 이주민 사역 시 참여 의향을 묻은 결과, 성도의 68%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세계를 품는 '교육 선교' | 이주민 자녀 학교 존재의 의미와 이유 (CGN, 유해근 대표(나섬공동체))

## 관련 성경 구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4절)

## 목회 적용점

국내 거주 외국인 258만 명 시대! 이번 조사는 이주민 선교가 더 이상 특수 사역이 아닌 한국교회의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목회적 과제로 급부상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이주민 사역을 수행 중인 교회는 12%에 불과하지만, 현장 사역자들의 확장 의지(86%)와 성도들의 높은 참여 의향(68%)은 이주민 선교가 향후 한국교회 선교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사역의 잠재력이다. 이주민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의 성도 68%가 이주민 사역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현장 목회자들이 우려하는 성도들의 거부감이 실제로는 '준비된 환대'로 전환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교회는 '관계 중심적 환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창한 프로그램보다 이주민과의 '정기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이주민을 수혜자가 아닌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해외 선교사의 80% 이상이 한국에 돌아가면 이주민 사역을 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실제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하는 교회들이 언어, 문화 등 이주민을 연결시킬 사역자가 필요한데 향후 해외 한인 선교사의 국내 이주민 사역 현장으로의 사역 전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주민 선교의 확장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공공성'과 '환대의 영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